

■ 특집 1 - 식민주의의 다양한 얼굴 ■

“호모 루덴스”의 탈식민주의 :
서인도 식민지의 크리켓과 카니발 문화*

하영준

I. 머리말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이후 식민주의가 문화와 맺는 내밀한 권력 관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탈식민주의라는 독자적 연구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탈식민주의는 영화·음악·젠더·과학 기술 등의 연구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성찰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러한 한계는 식민지 문화에 관심을 촉구하면서도 문학과 텍스트 연구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온 탈식민주의의 연구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다.¹⁾ 그러나 식민주의가 스포츠와 맺은 밀접한 관계는 분명했다.

식민주의 담론은 식민지 국민의 몸에 있다고 가정된 제국 본국과 구별되는 어떤 차이에 항상 관심을 가졌다. 식민지 국민의 몸은 원시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구성되면서 유럽인의 근대적·정상적 몸과 구분되었다. 스포츠 경기는 이러한 인종적·민족적 몸 차이를 자명하게 만드는 내밀한 장소였다. 식민지 선수의 신체와 기량은 그가 속한 인종이나 민족의 왜곡된 특성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863)

1) John Bale and Mike Cronin eds., *Sport and Postcolonialism* (Oxford: BERG, 2003), pp. 1-2, Stephen Wagg ed., *Cricket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colonial Age: Following 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p. 2-3.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고는 했다. 따라서 식민주의에 맞선 반식민주의 투쟁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자의식적이고 명시적인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몸동작을 통해서 전달되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의미 차원에서도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은 야구와 축구에 밀려났지만, 크리켓은 오랫동안 서인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스포츠였다. 영국식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C. L. R 제임스(C. L. R. James)와 같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영국식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특히 영향을 발휘했다.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식민지 조건은 스포츠를 권력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투쟁에 전유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때 전문 선수가 되려고 했을 만큼 크리켓을 좋아했던 제임스는 청년 시절 크리켓 경기 기사를 쓰는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영국 이주 후 겪게 된 곤궁한 생활을 버렸다.

그러나 크리켓은 혁명가 제임스에게 생계 수단 이상의 역할을 했다. 제임스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다면적 성격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60대의 노년 제임스는 크리켓을 통해서 자기 생애를 회고하는 『경계를 넘어서(1963)』을 쓰면서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었다.³⁾ 제임스라는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서인도 국민의 형성과 연결하는 매개 수단으로 크리켓을 사용하면서 식민지 대중문화의 신체 정치에 주목했다.

제임스가 자기 책을 집필했던 시기(1958~63)는 서인도 제도에서 식민지 독립이 열정적으로 추진되었던 때였다. 서인도 연방의 결성은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이라는 형식적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실질적 해방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제임스도 오랜 해외 생활 이후 고향 영국령

2) Cleam Seecharan, *Muscular Learning: Cricket and Education in the Making of the British West Indie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ingston: Ian Randle Publishers, 2005), pp. 19-46.

3) C. L. R. James, *Beyond A Boundary*(196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제임스의 크리켓 관련 글 모음집은 C. L. R. James, *A Majestic Innings: Writings on Cricket*(London: Aurum Press Ltd, 2006).

트리니다드로 돌아와 ‘서인도 연방 노동당(West Indian Federal Labour Party)’의 서기로서 활동하면서 연방 결성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랜 식민지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서인도 사회의 지역적·인종적·계급적 분열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서인도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서인도 연방의 결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요구되었고, 제임스는 이를 서인도 문화에서 찾았다. 서인도 국민이 서구 문화를 전유하는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서인도 문화의 발전은 유럽 식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임스는 서인도 제도의 국민 정체성이 서구 문화를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했다. 같은 서인도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 사상가인 세제르(Aim C saire)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이었다. 세제르는 ‘네그리튀드(n gritude)’를 통해서 흑인의 열등함이라는 식민주의 담론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간됨을 긍정하는 길은 오랫동안 망각해 온 아프리카라는 서인도 사회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는 주장했다.⁵⁾ 그러나 제임스는 서인도 사회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서인도 역사에서 일어난 단절과 재구성을 강조했다.⁶⁾ 선주민 인디언들이 인구학적으로 전멸하여 서인도 제도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과 달리 전통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흑인 노예들은 강제 이주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재빨리 서구 문화를 습득하고 변형하여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하여 갔다. 그 결과로서 더는 아프리카인이 아닌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범주 즉, 서인도 흑인(크레올)이 되었다.⁷⁾

4) C. L. R. James, “On Federation(1958-59)”,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p. 85-128.

5) Aim C saire, *Return to My Native Land*, trans. by Anna Bostock & John Berger (Penguin Books, 1969).

6) Angus Calder, "An Audience with C. L. R. James", *Third World Book Review* 1 (1984), p. 21.

7) C. L. R. James, “The Making of the Caribbean People(1966)”,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 The Montreal Lectures of C. L. R. James* (Edinburgh: AK Press, 2009), p. 32.

제임스는 노예 해방 이후 새롭게 이주한 인도계와 중국계 등 다양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민 정체성을 가진 서인도 연방을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는 길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이주민이 공유하는 서구 문명의 변형 즉, 서구 문화의 전유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경계를 넘어서』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그 사상이 서인도 제도에서 기원했다면, 그것은 내가 추적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한 영국 속에서, 영국의 삶과 역사 속에서만 생겨났을 것이다. 3세기 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칼리반(caliban)은 카이사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영역으로 스스로 나아가야만 한다.”⁸⁾

서인도 문화에 대한 제임스의 논의는 그가 종종 유럽 중심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서구 문명으로 상징되는 정복자 카이사르의 시선이 무시하고 배제해왔던 서인도의 국민과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탐사하려 했다. 그는 식민지 독립을 획득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칼리반, 즉 서인도 국민의 창조적인 재능을 신뢰했다. 그러나 같은 영국령 서인도 출신의 노벨상 수상작인 나이폴(V. S. Naipaul)은 서인도 사회가 자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제임스의 역사 인식에 동의했지만, 서인도 국민을 신뢰하지는 않았다.⁹⁾ 서구 문화를

8) James, *Beyond A Boundary*, p. xxi. 칼리반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태풍(The Tempest)』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괴물이다. 태풍의 줄거리는 밀라노의 영주 프로스페로(Prospero)가 동생의 음모로 쫓겨났지만 강한 마법을 사용해 자기 지위를 되찾게 되는 내용이다. 칼리반은 마녀의 자식으로 바다에 표류하던 프로스페로를 구해준다. 그러나 프로스페로는 마녀를 죽이고 그녀의 마법을 빼앗고 그녀의 섬을 지배하면서 칼리반을 노예로 삼는다. 세제르는 1969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자신의 희곡, 『또 하나의 태풍(One Temp re)』을 쓰면서 칼리반을 전면에 내세웠다. 칼리반은 유럽 백인을 환대했지만 결국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아메리카 원주민·아프리카인·식민지인을 상징했다.

9) 아프리카계가 아니라 인도계 서인도인이었던 나이폴은 제임스의 역사 인식에서 받은 큰 영향을 자신이 쓴 소설에서 ‘레브룬(Lebrun)’이라는 그를 상징하는 인물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레브룬이 쓴)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태어난 곳의 역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느꼈던 이윅을 알 수 있었다. 나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V. S. Naipaul, *A Way in the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1994), p. 114. 나이폴의 비판적 전망은 서인도 국민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다룬 그의 서인도 방문기에 잘 나타나 있다. V.

전유하려는 시도는 함량 미달의 정체성을 가진 ‘흉내 내는 사람들(mimic men)’을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했다.¹⁰⁾ 반면, 저명한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바바(Homi K. Bhabha)는 ‘흉내 내기(mimicry)’가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법에 근거한 고정된 정체성을 침식하고 저항적 정체성을 낳게 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두었다.¹¹⁾ 제임스는 나이폴의 비판적인 전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바의 낙관적인 전망과도 달랐다.

제임스는 모든 흉내 내기가 식민주의 담론을 침식하는 정치적 저항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인도 식민지의 흑인 중간계급 일부가 보여주는 서구 문화에 대한 흉내 내기가 독립의 진정한 달성을 좌절시키고 정치적·경제적 종속 상태가 지속하는 신식민주의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¹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이폴의 비판론처럼 모든 흉내 내기가 서인도 제도를 진정성이 결여된 ‘가짜’이자 ‘무질서’와 ‘혼동’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정한 전유 방식은 식민주의 지배 문화에도 도전하고 서인도 국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설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이폴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서인도 문학과 영국 문학의 발전에 미친 큰 영향은 서인도 국민이 가진 이러한 창조적 재능의 전형적 사례였다. 제임스가 서인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S. Naipaul, *The Middle Passage: The Caribbean Revisited*(1962)(New York: Vintage Books, 2002), p. 45.

10) V. S. Naipaul, *Mimic Men* (Vintage Books, 1967). 나이폴과 제임스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다룬 논문은 다음을 참조. Dexu Zhang, “Representational Ethic: *The Mimic Men* and the Mimic Me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57-1(2016), pp. 29-40.

11) Rob Nixon, *London Calling: V. S. Naipaul Postcolonial Mandarin* (New York, Oxford UP, 1992), pp. 156-158; 이혜란, 「포스트식민 조건과 나이폴적 인물의 가능성: ‘흉내내는 사람들」, 『영어영문학』, 21권, 1호(21세기 영어영문학회, 2008), 12-13쪽;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제 10권 1호(2005, 봄/여름), 40-41쪽. 이 연구의 입장과 달리 제임스의 논의가 바바의 “교활한 공손함(sly civility)” 개념과 가깝다는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Malcolm Maclean, “Ambiguity within the Boundary: Re-reading C. L. R. James’s *Beyond a Boundary*”, *Journal of Sport History*, 37-1(Spring 2010), pp. 99-117.

12) C. L. R. James,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Trinidad: Vedic Enterprises Ltd, 1962), pp. 121-129.

서인도 제도에 이식된 크리켓과 같은 영국의 조직 스포츠에 주목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저작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대중문화의 다층성, 즉 순응과 저항의 양상을 역사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임스의 크리켓 저작에만 집중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서인도의 카니발 문화를 다룬 그의 글들을 함께 고려하려 한다.¹³⁾ 제임스의 고향 트리니다드에서 시작된 카니발은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큰 볼거리의 하나이자 전 세계로 전파된 국민 축제이다.¹⁴⁾ 원래 프랑스계 백인 지배층이 시작했던 카니발은 노예 해방 이후 흑인 하층계급의 식민지 저항 문화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독립 시기 흑인 중간계급이 전유하여 서인도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리켓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카니발의 문화적 특성은 런던의 서인도 이주민들이 백인의 인종 차별 폭동에 맞서 1964년부터 노팅힐 카니발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¹⁵⁾

그러나 카니발은 크리켓과 하나의 국민 문화로 통합하기 힘든 차이와 이질성을 갖고 있었다. 크리켓과 카니발은 ‘주인의 도구를 사용하는(using the master’s tools)’ 다양한 방법들, 즉 다른 정치적 전망과 실천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흑인 중간계급 출신이었던 제임스가 크리켓과 달리 트리니다드 카니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¹⁶⁾ 이곳저곳에 흩어져있는 짧은 글들만이 있을 뿐이다.

13) C. L. R. James, *American Civilization* (Cambridge MA & Oxford UK: Blackwell, 1993), pp. 118-165; C. L. R. James, "Carnival", Anna Grimshaw ed., *The C. L. R. James Reader* (Oxford UK & Cambridge USA, 1992), pp. 285-288; C. L. R. James, "On the Mighty Sparrow",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p. 191-201.

14) Garth L. Green and Philip W. Scher, "Introduction: Trinidad Carnival in Global Context", eds., *Trinidad Carnival: The Cultural Politics of a Transnational Festiva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pp. 1-24.

15) Race Today Collective, *The Road Make to Walk On Carnival Day: The Battle for the West Indian Carnival in Britain* (London: Race Today Collective, 1977).

16) 제임스의 카니발 관련 논의에 대한 유일한 연구는 Christian Hogsbjerg, "The Independence, Energy and Creative Talent of Carnival Can do

그러나 이 연구는 서인도 크리켓에 대한 저작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제임스가 쓴 트리니다드 카니발과 관련 글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이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서인도 식민지 문화가 가졌던 순응과 저항의 다층성과 함께, 저항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II. 투쟁의 장으로서 대중문화

2차 세계 대전 이후 기대했던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적-전체주의적 괴물”이 소련과 미국에서 성장하자, 1940년대 중반부터 제임스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이론적 전제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체주의의 등장 원인에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대적 삶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깊은 사회적·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리고 그는 레닌주의 전위정당론을 거부하고 대중의 자기활동을 옹호하는 이단적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제임스의 인식은 중요하게 작용했다. “내 개인적 견해에서, 내 역사와 내 정치가 포함할 수 없는 듯한 인간 존재의 거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역사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 하는가? 지금 원하는 것을 그때도 원했던 것인가? 내가 알았던 인간들, 그들은 무엇을 원했던가? 예술이란 진정 무엇이고, 문화란 진정 무엇인가?... 언뜻 보기에 보통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때, 원하는 한 가지는 스포츠와 게임을 조직하는 것이다. 탐욕스럽고 열정적으로 원했다.”¹⁸⁾

제임스는 자신의 저작, 『경계를 넘어서(1963)』을 영국령 서인도의 크리켓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어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크리켓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크리켓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아는 것인가?(What do they know

Other Wonders’: C. L. R. James on Carnival”, *Caribbean Quarterly: A Journal of Caribbean Culture*, 65-4(2019), pp. 513-533.

17) James, *American Civilization*, p. 38.

18) James, *Beyond A Boundary*, pp. 151-152.

of cricket who only cricket know?”¹⁹⁾ 이 말은 “잉글랜드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잉글랜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아는 것인가?(What should they know of England who only England know?)”라는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질문을 변용한 것이었다. 제국주의자였던 키플링은 잉글랜드 국민이 대영 제국의 위상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광대한 식민지를 통치하는 제국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제임스는 급진적인 정치적·문화적 인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키플링의 물음을 변주한다. 그는 크리켓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크리켓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인도 식민지 사회의 권력 구조와 그 문화적 맥락이었다.

제임스가 크리켓을 선택했던 이유는 인류학자인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용어를 빌자면, 영국령 서인도에서 크리켓이 ‘심층 놀이(deep play)’였기 때문이었다.²⁰⁾ 심층 놀이는 노름처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합리적 행위이자 경제적 이해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회의 의미와 상징체계를 드러내는 놀이이다. 기어츠는 1958년 ‘발리섬 수탉 싸움’을 통해서 발리섬 주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에게 크리켓은 영국령 서인도의 권력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놀이였다.²¹⁾ 크리켓은 서인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인도 국민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대중 스포츠였다. 선수와 관중,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 즉 서인도 국민은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크리켓에 투영할 뿐만 아니라, 크리켓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재)인식했다. 따라서 크리켓은 경기장 울타리의 ‘경계를 넘어서’ 서인도 사회로 들어갈 수

19) *Ibid.*, p. xxi.

20) Geertz, Clifford,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8) 참조.

21) Douglas Hartmann, "What Can Learn from Sport if We Take Sport Seriously As A Racial Force? : Lessons from C. L. R. James's *Beyond a Boundary*", *Ethnic and Racial Studies*, 26-3(London: May 2003), pp. 445-457.

있는 “세상을 향한 창(a window to the world)”이었다.²²⁾

크리켓은 영국 퍼블릭스쿨에서 엘리트 집단을 형성할 목적에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퍼블릭스쿨은 스포츠를 통하여 심판 결정의 존중, 팀을 위한 경기, 용감히 버티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상대방에 관대하기, 승자를 존중하기 등 ‘페어플레이(fair play)’로 상징되는 ‘퍼블릭스쿨 코드(public school code)’를 귀족이나 중간계급 자제들에게 함양시키려 했다.²³⁾ 퍼블릭스쿨 코드는 법의 존중, 자기 규율, 칠전팔기, 공정성 등과 같은 엘리트 집단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연관되어 있었다.

명문 학교들의 대항전은 이들 엘리트 집단끼리의 사회적 유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당시 ‘체육 정신(Athleticism)’이라고 불렸던 퍼블릭스쿨의 교육은 “제국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건 없이 바치는” 엘리트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²⁴⁾ 크리켓이 조직 스포츠로 발전하는 과정은 제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급과 인종을 초월한 체육 단체들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페어플레이’로 상징되는 크리켓의 보편주의는 영국 엘리트 지배계급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수단이었다. 크리켓은 엘리트 양성 스포츠로 시작되었지만, 재능이 있다면 천한 신분을 가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본국과 식민지들 사이에 돌아가며 열리는 크리켓 대항전은 대영 제국의 통합과 단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 기제였다. 크리켓과 같은

22) C. L. R. James, *Beyond a Boundary*, p. xxi.

23) Sean Scalmer, “Cricket, Imperialism and Class Domination”, *Workingusa: The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10(2007), pp. 435-436; James, *Beyond A Boundary*, p. 34.

24) J. A. Mangan, “Britain’s Chief Spiritual Export: Imperial Sport as Moral Metaphor, Political Symbol and Cultural Bo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1-2(2010), pp. 328-336; 황옥철, 장미향, 「Athleticism과 Amateurism이 영국의 스포츠 문화 발전에 주는 의미」, 『한국스포츠리서치』, 제 14권, 제 4호(2003), 995-1006쪽 참조. 체육정신이란 19세기 영국의 퍼블릭 스쿨에서 발전된 것으로, “경쟁적인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통합적인 인격 함양을 추구한 교육 이데올로기”라 정의할 수 있다.

“호모 루덴스”의 탈식민주의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식민지 종속민은 대영 제국의 문화와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 문화를 침식할 기회와 수단을 제공했다.²⁵⁾

크리켓 경기에는 페어플레이라는 보편적·개방적 형식과 이를 부정하는 계급적·인종적 내용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제임스는 트리니다드의 퍼블릭스쿨인 ‘퀸즈로얄칼리지(Queen's Royal College)’를 다녔던 자기 경험을 통해서 크리켓에 각인되어 있던 이러한 긴장 관계를 자각하고 있었다.²⁶⁾ 그리고 그가 속한 흑인 중간계급은 크리켓의 보편주의를 통해서 식민 지배 담론을 안으로부터 해체하고 스스로 서인도 국민의 대표자로 나서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²⁷⁾

영국의 퍼블릭스쿨과 식민 지배에서 명백히 기원하는 크리켓과 달리

25) Arjun Appadurai,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 연구, 2004), 161-163쪽.

26) ‘퀸즈 로얄 칼리지’는 트리니다드의 식민지 주민에게는 매년 4명만이 입학이 허가되는 퍼블릭스쿨이었다.

27) “우리는 잡색의 패거리(motley crew)였다. 몇몇 백인 관리와 백인 사업가, 중간계급 흑인과 몰라토의 아이들, 그리고 중국계 소년들, 이들의 부모들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엉터리 영어를 쓰고 있었다. 인도 소년들, 그들의 부모들 가운데 몇몇은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몇몇 가난한 흑인 소년들, 이들은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들의 부모들은 굶주리며 작은 농지를 경작하는 고역을 하고 있었지만, 장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고되게 번 돈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는 아무리 불합리할지라도 심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팀과 함께 경기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개인적 성향과 이해관계조차도 전체의 선(the good of the whole)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곤경을 감내했으며, 불행에 불평하지 않지 않았다. 우리는 패배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됐네.’나 ‘운이 나빴군.’ 같은 말이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왔다. 우리는 경쟁자에게 너그러웠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심지어 그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 그렇게 했다.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교실 내에서, 트리니다드의 이질적인 뒤범벅(heterogeneous jumble)은 어떤 종류의 질서로 쳐서 쫓겨 넣고 밀어 넣으며 흔들어서 채워 넣어졌다. (반면) 경기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소년들이 규칙을 준수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다수 소년들은 그렇게 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중받는 소년들은 항상 철저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James, *Beyond a Boundary*, p. 25.

트리니다드 카니발의 기원은 논쟁적이다. 영국의 식민 지배 이전에 먼저 정착했던 가톨릭 프랑스계 백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최하던 프랑스의 카니발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의 ‘칸블레(Canboulay)’에서 기원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도 제기되고 있다.²⁸⁾ 그러나 노예제 폐지 이후 트리니다드 카니발을 흑인 하층계급이 전유하게 된 것은 분명하며 이들의 거리 문화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²⁹⁾ 백인들의 카니발에 연주되던 미뉴에트 음악과 바이올린 선율은 서아프리카의 노동요에서 유래한 칸블레의 칼린다(Kalenda)와 북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흑인 노예의 칸블레가 카니발로 발전하면서 칼린다도 칼립소로 변모하게 되고 그 중심요소가 되었다.³⁰⁾

흑인 칼립소 가수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일상의 사건을 처음에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방언을 사용하다가 19세기 말부터는 영어 방언으로 즉흥적으로 노래했다. 칼립소 가수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량(sweet man)’인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 매력과 자유를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제임스는 이들 칼립소 가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 시절에는 일상에서 윌리, 진, 프레디, 짐꾼총각, 부두 하역꾼이나 백수 총각 등으로 불리던 이들이 카니발을 준비하면서 가수 노릇을 했고, 사람들은 노르망디 공작이나 무적

28) Hollis Urban Liverpool, “Origins of Rituals and Customs in the Trinidad Carnival: African or European?”, *Trinidad and Tobago Carnival*, 42-3(1998), p. 31.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Amanda Lynn Zavitz & Anton L. Allahar, “Racial Politics and Cultural Identity in Trinidad's Carnival”,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2-2(2002), pp. 125-145.

29) Bridget Brereton, "The Trinidad Carnival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Milla Cozart Riggio ed., *Carnival Culture in Action: The Trinidad Experience* (New York: Routledge, 2004), pp. 53-69.

30) Michael Anthony, *Historical Dictionary of Trinidad and Tobago Latin American Historical Dictionaries* (Lanham, Md., & London: Scarecrow Press, 1997), pp. 87-93, 김용호 「카리브 대중음악 칼립소에 관한 연구-기운에서 카리브통합운동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2(2017), 10-14쪽.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자신들만의 카니발인 칸블레를 개최했고 양쪽으로 패를 나눠 막대기를 들고 싸웠다. 이 때 각 패의 지도자인 빅파파(big pappies)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칼린다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으로 모욕하는 공격적 내용이었다.

나리 같은 멋진 별명으로 이들을 부르면서 젊은 문학도들이 키플링이나 버나드 쇼에게 존경을 표하듯 떠받들곤 했다. 그들은 청중의 박수갈채와 질 좋은 럼주의 술기운에 고무되어 저녁 일곱 시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경쟁적으로 노래를 했다.”³¹⁾

제임스가 속했던 트리니다드의 흑인 중간계급이 크리켓을 통해 자신을 신체적 기량을 발휘하면서 백인 지배층과 동등한 ‘위신(respectability)’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달리, 흑인 칼립소 가수들은 백인 지배층의 위신을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흑인 하층계급 사이에서 높은 ‘평판(reputation)’을 누렸다. 위신은 빅토리아 시기 영국 중간계급이 문화적 자기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출현했다. 위신은 부르주아 노동윤리, 종교적 경건함, 자기 절제와 청결함, 예의가 바른 언행 등 오랜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 일상 행위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었다. 영국 중간계급은 위신을 ‘방탕한’ 귀족계급과 ‘게으른’ 하층계급과 구분되는 자기 정체성의 토대로 삼았다. 위신은 영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국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문화적 기제였다. 반면, ‘평판’은 흑인 중간계급이 추구했던 ‘위신’이 상징하는 덕목을 정반대로 뒤집은 형태를 취했다.³²⁾

카니발 시기에 하층계급인 남녀는 때를 지어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성모독적이고 외설적인 가장행렬(masquerades)과 폭력적인 막대기 싸움(stick-fighting)을 했고, 아프리카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복을 치며 춤을 추었다. 또한, 칼립소 가수들은 식민지 백인 지배층의 도덕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풍자하고 조롱했다. 이들은 흑인 중간계급도 교육과 문명화의 대가로 자신의 남자다움을 상실했다고 비웃었다.³³⁾ 백인 지배층과 동등한 위신을 얻기 위한 흑인 중간계급의 진보와 자기계발의 역사는 이들에게 ‘거세’의

31) C. L. R. James, "Triumph (1929)," Anna Grimshaw ed., *The C. L. R. James Reader*, p. 29.

32) Stephen K. Scott, "Through the Diameter of Respectability: The Politics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in Postemancipation colonial Trinidad", *New Indian Guide/Nieuwe West- Indische Gids*, No. 76(2002), p. 295.

33) *Ibid.*, p. 300.

과정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층계급의 카니발과 칼립소 가수들은 식민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1868년 ‘아프리카풍습금지법’을 제정했다.³⁴⁾ 부두교 의식은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타악기 연주도 금지되었다. 외설적인 춤과 노래도 허용되지 않았다. 1877년부터 막대기 싸움도 경찰력을 동원해 막았다. 1880년부터는 카니발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막대기 싸움은 물론 카니발의 핵심인 가장행렬도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식민지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1881년 ‘칸블레 반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총 38명의 경찰과 50여 명의 흑인이 다치게 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결국 물리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도 규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백인 지배층을 보호하기 위해 칼립소 노래에서 실명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³⁵⁾ 종교적 경건함을 추구했던 흑인 중간계급은 제임스의 부모가 어린 제임스에게 훈계했던 것처럼 카니발의 칼립소를 “지옥으로 가는 여러 지름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면서 혐오했다. 그러나 흑인 중간계급은 하층계급의 카니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흑인 중간계급은 반정부 시위와 폭동이라는 무익한 결과만을 낳은 식민지 정부의 강제 조치에 제동을 걸고 카니발을 성적·도덕적으로 정화하려 시도했다. 식민지 정부의 규제와 흑인 중간계급 조직들의 개입을 통해서 트리니다드 카니발을 지배했던 신성모독과 외설, 폭력과 무질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카니발과 칼립소는 자체 규칙과 통제에 기초한 경연 방식으로 바뀌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respectable)’ 유럽식 문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카니발의 개선을 통해서 흑인 중간계급은 자신을 국민의

34) Richard D. E. Burton, *Afro-Creole: Power, Opposition, and Play in the Caribbe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98-205, Jocelyne Guilbault, *Governing Sound: The Cultural Politics of Trinidad's Carnival Music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 42-43.

35) Leah Rosenberg, *Nationalism and the formation of Caribbean literature* (Palgrave Macmillan, 2007), p. 139.

“호모 루덴스”의 탈식민주의

대표자로서 식민지 정부와 하층계급에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1920년대 청년 제임스는 흑인 중간계급의 민족적 헤게모니가 창출되면서 하층계급의 카니발이 순치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지금은 그런 삶은 사라지고 없다. 이제 모든 카니발 행사는 열 시 전에 끝나야 한다. 경찰관들은 막대기 싸움꾼과 피에르를 다루기 위해 위생 설비 검사관이 구더기 다루듯 한다. 밤의 거리는 전깃불로 환하고 법의 손길은 더 멀리 더 강하게 뻗는다. 예전의 무법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막사촌의 삶은 재미를 잃었다.”³⁶⁾

제임스는 영국의 기원을 갖는 크리켓과는 다르게 카니발은 지배적 가치와 규범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인도 민중의 삶과 욕망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카니발은 크리켓과 계급상으로 갈등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 지배 체제에 대한 다른 저항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영 제국의 지배 문화는 서인도 하층계급과 같은 식민지 타자를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야만적 존재로서 상징화하고 ‘문명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분명 흑인 중간계급 출신의 크리켓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구의 지배 문화와에 순응/저항하면서 (물론 그와 다른 방식에서) 식민지의 권력 관계를 변형시켰다.

청년 제임스는 흑인 중간계급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하층계급이 포섭되는 과정을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했다. 1920년대 문학을 통해서 표현했던 트리니다드 하층계급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관한 그의 관심은 서인도 국민 문학의 등장에 이바지하면서 흑인 중간계급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서인도의 연방 형성이 결정적으로 좌절되고 흑인 중간계급의 민족주의가 한계를 점차 드러내게 되면서 노년 제임스는 이들과는 다른 방식의 보여준 하층계급의 문화적 투쟁에 새로운 관심을 두게 되었다.

III. 흑인 중간계급과 크리켓의 신체 정치

36) James, "Triumph", p. 30.

노년 제임스는 청년 시절 크리켓 클럽의 선택과 관련된 상황을 떠올리면서 서인도 식민지의 인종적·계급적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³⁷⁾ 트리니다드의 퍼블릭스쿨, ‘퀸즈로얄칼리지’의 재능있는 크리켓 선수였던 그는 졸업 이후 가입할 크리켓 클럽을 선택하게 되었다. 노년 제임스는 선택의 문제가 자신을 “전체 미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위기로 던져 넣었다.”라고 언급했다.³⁸⁾ 서인도 사회에서 크리켓 클럽의 선택은 주말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여가 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종적·계급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트리니다드 사회에서 크리켓 클럽의 구조는 전체 사회의 인종적·계급적 위계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다양한 일류 클럽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계를 통해서, 그 섬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분 계층을 대표했다.” 퀸즈파크(Queen's Park)는 “대부분 백인이고 부유한” 트리니다드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샴록(Shamrock)은 같은 백인이지만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다. 메이플(Maple)은 의사나 변호사·교사·저널리스트 같은 직업을 가진 갈색 피부의 트리니다드 혼혈 중간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샤논(Shanon)은 흑인 중간계급 하층과 노동계급 상층을 구성원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스팅고(Stingo)는 정육점 주인·재단사·일용 노동자들 같은 노동계급 하층이 많았다.

청년 제임스는 메이플과 샤논 클럽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다. “퀸즈파크와 샴록 클럽은 너무 높고 스팅고 클럽은 너무 낮아서” 선택 밖에 있었다. 메이플은 “갈색 피부를 가진 중간계급의 클럽”이었다. 이들에게 피부색이 계급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피부색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었다. 메이플 구성원들은 “자신의 클럽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 청년 제임스는 흑인이었지만 그러나 메이플 클럽의 인종 규칙에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교사들로 구성된 그의 친족은 트리니다드 식민지 사회에서

37) Grant Rarred, "The Maple Man: How Crikcet Made a Postcolonial Intellectual", Grant Farred ed., *Rethinking C. L. R. James*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165-172.

38) James, *Beyond a Boundary*, pp. 49-53.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 게다가 청년 제임스 자신이 트리니다드 최고 명문학교 ‘퀸즈로얄칼리지’ 출신이고 문학 모임에서 떠오르는 별이었다.

서인도 식민지는 크리켓 클럽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인종-계급의 위계적 구분이 분명히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분에는 어떤 모호함이 있었다. 과연 검은 피부색이 끝나고 혼혈의 피부색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이며, 혼혈의 피부색이 끝나고 백인의 피부색이 시작되는 지점은 또한 어디인가? 계급적 지위는 이러한 자의적이고 모호한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³⁹⁾ 계급적 지위는 특정 피부색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나 반대로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제임스는 피부색으로 흑인이지만 친족과 자신이 획득한 문화 자본과 전문직을 통해서 메이플이라는 유색 중간계급의 클럽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다.⁴⁰⁾

샤논은 “교사·법률회사 직원·인쇄소 노동자·백화점 점원 등으로 구성된 하층 흑인 중간계급의 클럽”이었다. 샤논 클럽의 선수들은 흑인 대중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샤논 클럽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게 될 크리켓 선수들, 실리(Ben Sealey)·콘스탄틴(Learie Constantine)·힐(W. St. Hill) 등이 있었고, 매우 뛰어난 경기 실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콘스탄틴은 나중에 제임스가 영국으로 이주하고 크리켓 기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다. 따라서 청년 제임스는 샤논과 메이플 클럽 사이에 선택하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 제임스는 자신의 선택과 관련해서 평소 자신이 조언을 구했던 연장자인 로우치(Mr. Roach)에게 답을 구했다. 로우치는 “피부색에 따른 구분을 공개적으로 경멸했지만”, 청년 제임스에게 샤논이 아니라 메이플 클럽에 참가할 것을 권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난센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느낄지 이해한다. 그러나 메이플 팀원들 대다수는 너의 친구들이고 나의 친구들이다.

39) Aisha Khan, "Creolization Moments", Charles Stewart ed., *Creolization: History, Ethnography, Theory* (California: Left Coast Press, 2007), p. 240.

40) James, *Beyond a Boundary*, p. 50.

네가 삶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해라.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⁴¹⁾ 메이플은 청년 제임스가 앞으로 살아가며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반면 샤논의 구성원들과는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 로우치의 조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트리니다드의 사회적 권력은 크리켓 클럽을 통해서 제임스가 만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만약 청년 제임스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트리니다드의 혼혈 중간계급뿐만 아니라 지식인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될 수 있었다. 식민지 중간계급의 지위는 매우 취약했다. 자신의 전망을 문학가이자 지식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던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년 제임스는 메이플 클럽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식민지 지식인이 지배 권력의 작동에 어떻게 공모하게 되는지 드러낸다. 지젝(Slavoj Zizek)의 표현을 빌자면 제임스는 전형적인 ‘냉소적 주체(Cynic subject)’였다.⁴²⁾

청년 제임스는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지 않았다. 권력의 호명에 순순히 응답하는 양순한 주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종적·계급적으로 왜곡된 식민지 사회의 권력 관계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 권력을 작동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다는 냉소적 태도를 보인 주체의 반복된 행동(실천)에 있었다. 식민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않'이 아니라 '행함'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제임스의 선택은 서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식민지의 인종적·계급적 권력 관계가 재생산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노년의 제임스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평가했다. 청년 제임스는 메이플 클럽에서 빈약한 크리켓 경기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41) *Ibid.*, p. 53.

42) 홍준기, 「이데올로기의 공간, 행위의 공간: 슬라보예 지젝의 포스트마르크주의」, 『맑스주의 연구』, 제 5권 3호(2008), 205쪽.

트리니다드 민중과 분리된 보수적 태도에 서게 되었다. “그 섬의 근본적인 분열에 직면해서, 나는 우측으로 가고 있었다. 자신을 민중적인 부분과 단절하는 것에 의해서, 내 정치적 발전을 몇 년 동안 지연시켰다.”⁴³⁾ 그러나 청년 제임스는 메이플 클럽을 선택한 것 때문에 크리켓 경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화 정치적 갈등을 보다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었다. 노년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단순히 권력 관계를 재생산한 자신과 달리 권력 관계에 도전했던 샤논 클럽의 크리켓 선수들을 분석했다. 이들에게 크리켓은 권력 관계가 재생산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장소였다.

당시 트리니다드의 사회적 갈등은 메이플과 샤논의 시합에서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었다.⁴⁴⁾ 두 클럽은 적대적인 두 이념을 각각 상징했기 때문이다. 샤논 클럽은 ‘퀸즈파크’ 백인들의 인종 차별을 혐오했지만, 메이플 클럽에서 더욱 교활한 인종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메이플 클럽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럽 구성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었다. 따라서 샤논 클럽은 메이플 클럽과의 모든 시합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거부를 보여주려 했다. 샤논과 메이플의 시합은 식민지 사회의 모든 갈등을 피부색 차별이라는 문제로 응축시켰다. 다른 정치적 갈등, 예를 들면 샤논 클럽이 백인의 퀸즈파크 클럽과 싸우거나 흑인 하층계급의 스팅고와 싸우는 것은 부차적이었다.

샤논 클럽은 메이플 클럽의 인종 차별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제로서 크리켓 시합의 스펙터클을 이용했다. 메이플 클럽을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패배시켜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했다. 제임스는 샤논이 메이플 클럽을 단순히 패배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꺾어버리고,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도록 애썼다.” 메이플 클럽이 상징하는 인종 차별의 역사, 그들의 흑인 혐오에 기인한 것이었다. 트리니다드 민중도 메이플 클럽의 구성원들이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선망했지만, 피부색에

43) James, *Beyond a Boundary*, p. 55.

44) *Ibid.*, p. 56.

기초해서 자신들과는 분리된 엘리트층을 형성하려는 이들의 태도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부색 차별에 대한 반감에서 샤논 클럽과 암묵적으로 연대하게 되었고 그들을 대변자로 간주했다.

메이플 클럽의 선수로서 샤논 클럽과 시합했던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들은 자신의 클럽이 이 섬의 다수 흑인 대중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했다… 하늘을 가로질러 쓴 것처럼 그들의 플레이는 명확히 말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크리켓 구장 위에서, 이 섬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섬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샤논 클럽이 크리켓 경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메이플 클럽이 토대로 하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다. 청년 제임스에게 힘의 훌륭한 타격과 콘스탄티의 지적인 투구는 메이플의 인종 차별에 대한 트리니다드 민중의 승리로 인식되었다.

샤논 클럽의 경기방식은 크리켓의 근본이념을 상징했다. 페어플레이·경쟁자 간의 평등·모두의 규칙 준수였다. 샤논 클럽의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 섬의 흑인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코드였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크리켓이 아니었다.” 이들은 대영 제국의 문명화 코드인 “그것은 크리켓이 아니야”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식민주의자들과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행위를 훈계하기 위해서 빌렸다. 샤논 선수들의 몸짓은 메이플 클럽과 식민 지배 자체에 “그것은 크리켓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샤논 클럽이 크리켓을 식민지 저항을 위한 도구로 변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경기에 깊게 빠져들어 그 코드를 준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켓 선수들은 “그 게임의 윤리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⁴⁵⁾ 샤논 클럽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제국과 식민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크리켓을 문화적 저항의 수단으로 전유했다. 크리켓 코드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는 것에 의해서, 샤논 클럽은 자신들의 저항 이데올로기를 경기의 통합된 부분으로 만들었다.

45) *Ibid.*, p. 31.

이러한 전유 행위는 크리켓이 예술로서 대중의 욕망을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심미적 표현양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만약 크리켓이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전달하는 사회적 반응과 함축을 전달할 수 없었다.”⁴⁶⁾ 샤논 클럽은 ‘극적인 볼거리(dramatic spectacle)’를 통해서 국민적 정서를 신체적으로 표현했다.⁴⁷⁾ 시합이 끝날 때까지는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예측 불가능성은 재능뿐만 아니라 우연에 좌우되는 인간의 삶을 떠올리게 하며 흥미를 자아내고 몰입을 가져왔다. 따라서 드라마를 볼 때처럼 관중은 경기에서 샤논 선수들과 동일시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재/형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들의 감정은 종종 경기장 안팎에서 분출되었다. ‘칼립소 크리켓’도 이때 등장했다. 제임스는 1930년대 런던에서 영국팀에 대항한 서인도 팀의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으로 난입해서 카니발을 떠올리는 춤과 노래를 부르는 서인도 이주민들의 모습을 언급했다.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 즉 민중은 수동적인 스포츠 소비자가 아니었다. 물론 크리켓 경기장에서 민중의 분노와 저항이 모두 표현될 수는 없었다. 또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 크리켓 선수들의 재능을 불러일으키거나 경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크리켓 선수들이 자기 재능을 ‘서인도 스타일’이라는 정교한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청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활기와 집요함을 가지고 경기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선망하고 열광하는 군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심지어 그때에도 크리켓을 표현의 매개로써 이용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⁴⁸⁾

노년의 제임스는 샤논 클럽이 대변했던 ‘샤논리즘(shannonism)’이 식민지 민중을 통합해서 영국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서인도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46) *Ibid.*, p. 34.

47) Neil Lazarus, “Cricket, Modernism, antional culture: the Case of C. L. R. James”, Neil Lazarus, *National and Cultural Practice in the Postcolonial Wor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48-149.

48) James, *Beyond a Boundary*, p. 53.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⁴⁹⁾ 1959년 대중 캠페인을 통해서 서인도 크리켓 대표팀 감독으로 한때 뛰어난 흑인 선수였던 워렐(Frank Worrell)이 선임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서인도 역사상 최초로 백인이 아닌 서인도 크리켓 대표팀 감독이었다.

제임스는 서인도 국민의 통합에서 흑인 민족주의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명백히 거부했다. 영국령 서인도 주민은 모두가 ‘실향민(expatriate)’이라는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역사 인식을 전제로, 크리켓과 같은 서구 문화의 전유를 통해서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전망했다. 그가 바베이도스의 인도계 크리켓 선수 칸하이(Rohan Kanhai)의 플레이에서 “국민적 중요성과, 우리의 국민 정체성 추구와의 그 관계를” 발견한 것도 이때문이었다.⁵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한 중국계 상점 주인을 회상하면서 서구 문화에 기초한 다인종적·다문화적 통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중국계 이주민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상점 주인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자본주의 위계의 중간 단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트리니다드 지역 공동체 밖에 있었다. 흑인 농민들은 계약 노동의 형태에 얽매어 무기력하고 정체된 상태였다. 5년의 계약이 끝날 무렵에 중국계 상점 주인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채무 관계는 지역 공동체의 계급적 갈등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중국계 상점 주인이 크리켓에 열광하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완화된다. 지역 크리켓 클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가난한 선수를 후원하면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인종적·계급적 갈등을 약화했다. 상점은 과거에는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크리켓 경기로 입씨름하는 회합소로 변화했다. 크리켓에 기초한 다양한 이주민들의 크레올화가 인종적·계급적 갈등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지역

49) *Ibid.*, p. 58. 스포츠와 민족적 아비투스 관계에 대해서는 Tim Edensor, 박성일 역, 『대중 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서울: 이후, 2008), 194-201쪽 참조.

50) C. L. R. James, “Kanhai: A Study in Confidence”,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pp. 166-171.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했다는 것이다.⁵¹⁾

IV. 대중의 자기조직화로서 카니발

노년 제임스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인도 이주민들이 크리켓과 같은 서구 문화의 전유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임스의 전망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위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1940년대부터 일관되게 노동자와 민중의 ‘자기 활동(self-activity)’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노동자가 억압받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비판했고 서유럽 좌파 정당의 전위주의와 관료주의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샤논 클럽의 구성원들은 노동자나 민중이 아니었다. 피부색 차별에서 메이플 클럽의 혼혈 중간계급과 대립했지만 어디까지나 중간계급의 구성원이었다. 제임스는 사논 클럽을 당시 트리니다드 식민지의 독립과 서인도 연방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던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

51)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중국 출신의 한 중국인이 우리 섬에 도착한다. 그는 좀 떨어진 시골에서 채소 가게 점원이 된다. 그리고 월급을 모아 흑인 농업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는 어떤 마을 중심지에서 작은 상점을 연다. 이들 지역에서 흑인들은 농업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잡초를 제거하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오 년 동안 노력하면 다 자란 코코야나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땅은 소유주에게 다시 넘겨줘야 한다. 흑인 경작자는 돈에 몹시 궁해서 5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생산물 대부분을 중국계 상점 주인에게 저당 잡힌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중국계 상점주가 신용대부자들과 불화를 일으키게 만든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약 15년 후, 크리켓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다. 스스로 시합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 마을의 팀을 지원한다. 이들을 위해서 매트와 사고, 배트와 공을 지원한다. 일요일 시합이 있을 때 음식을 제공한다. 크리켓 도구를 갖출 여유가 없는 선수들을 돕는다. 경기를 할 수 있게 가난한 소년들의 대부가 된다. 시합 날 지역민에 둘러싸여 있는 그를 볼 수 있다. 자기 사업에만 보여주었던 그런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그는 모든 공을 추적한다. 그 날 밤 내내 그의 상점은 과거의 경기나 다가올 경기에 대해 입씨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그는 그 팀이 순회 시합을 할 때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흥분하고 말이 많아지는 크리켓 경기 때를 제외하고 그의 과묵함은 여전하다. 우리 섬 곳곳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그 같은 사람들은 내 크리켓 기억에서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흥미를 자아낸다. 그의 사업과 가족생활은 별도로 하고, 지역 크리켓 클럽의 지원 이외에 그가 자기 주변의 삶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James, *Beyond a Boundary*, p. 63.

의 ‘민중민족운동(Peoples National Movement)’과 암묵적으로 동일시했다. 클럽 선수의 다수가 ‘민중민족운동’의 당원들이 되었고 대표적인 선수였던 콘스탄틴이 윌리엄스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동일시가 무리는 아니었다.⁵²⁾ 따라서 제임스의 접근은 정치 동료들에게 사회주의 신념을 배반한 것이자 마르크스주의적 원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⁵³⁾

흑인 중간계급은 자신들의 발전된 크리켓 기량을 통해서 대영 제국에서 잉글랜드가 가졌던 문화적 중심성과 보편성에 도전했고 자신을 서인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흑인 중간계급의 문화가 국민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서인도 민중문화는 배제되게 되었다. 청년 제임스는 이러한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흑인 중간계급의 일원으로서 이를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점은 그가 노동자와 민중으로 구성된 크리켓 클럽인 스팅고에 가졌던 태도에서도 알 수 있었다. 당시 스팅고 클럽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 제임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스팅고는 청년 제임스가 받아들이기 힘든 경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스팅고의 선수들은 “샤논을 특징짓는 자부심과 사적인 것을 넘어선 포부를 보여주지 못했다.”⁵⁴⁾

샤논은 매우 창조적인 경기를 하면서 트리니다드의 민중을 대표하는 클럽이 되었지만, 스팅고는 아니었다. 스팅고는 샤논이 받았던 민중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급 하층으로 구성된 스팅고는 메이플이나 샤논과 달리 민중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스�팅고는 충분한 위신을 가지고 있지

52) Walton Look Lai, "C. L. R. James and Trinidadian Nationalism", Paget Henry & Paul Buhle, eds., *C. L. R. James's Caribbean* 2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76.

53)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은 트리니다드 체류 시기에 제임스와 동행했던 그의 세 번째 부인, 셀마 제임스(Selma James)였다. 그녀는 제임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Frank Rosengarten, *Urbane Revolutionary: C. L. R. James and the struggle for a New Society*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8), p. 123.

54) James, *Beyond a Boundary*, p. 55.

못했다.” 이 같은 청년 제임스의 판단은 중간계급 출신이라는 그의 계급적인 한계를 표현했다. 스팅고는 청년 제임스의 정치적 상상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하층계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년 제임스는 자유주의적 반식민주의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서인도 사회에 대한 청년 제임스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인도 제도는 유럽 선진국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흑인 중간계급의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독립과 서인도 연방의 결성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의 자율성을 믿는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노년 제임스에게 서인도의 민중문화는 사회주의적 전망의 차원에서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부터 서인도로 이식된 크리켓이 어떻게 흑인 중간계급의 국민적 헤게모니 창출의 도구로서 전유되었는지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유의 반대편, 즉 배제된 민중문화의 단편들을 보여주었다. 이들 민중문화의 단편들은 흑인 중간계급의 민족주의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실재계(The Real)’였다.

노년 제임스는 자신의 책을 마무리했던 시기 동안(1958~63)에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의 정치적 퇴보와 서인도 연방의 좌절을 지켜보게 되었다. 또한, 샤논이 표현했던 문화적 민족주의가 트리니다드 민중문화와 가졌던 갈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자신이 속했던 흑인 중간계급이 과연 그가 경멸했던 혼혈 중간계급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의심을 점차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가 자기 자서전을 완성했던 해(1963년)는 아직 윌리엄스 정부에 대항한 트리니다드의 노동자 산업 투쟁(1965년)이나 블랙파워 운동(1970년)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따라서 그 갈등은 아직 잠재적인 형태로만 제임스의 저작에서 표현되었다. 제임스는 서인도 민중문화의 단편들을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웃에 살았던 매튜 본드만(Matthew Bondman)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다. 본드만은 자신의 할머니와 숙모들이 경멸했던 직업이 없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였다.⁵⁵⁾

55) “내가 그를 처음 기억할 때, 그는 이미 젊은 남자였다. 그는 보통의 키와 몸무게를 가졌고, 무서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대체로 더러웠다. 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사나웠고, 언어는 폭력적이었으며, 목소리는

본드만은 제임스의 자서전 전체를 틀 짓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제임스는 본드만에 대한 회상에서 자신의 글을 시작했다. 본드만은 유년 시절 제임스의 마음을 깊게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당황스럽게 만든 존재였다. 본드만은 부르주아 노동윤리, 종교적 경건함, 자기 절제와 청결함, 예의 바른 언행 같은 흑인 중간계급이 위신을 얻기 위해 추구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가치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었다. 본드만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더러웠으며 저속한 말과 행동을 했다. 사악한 인간으로서 간주했고 천대당하고 멸시받았다. 그러나 그런 그가 크리켓 경기장에서 배트를 들면, “매우 우아하고 멋스러운” 크리켓 선수가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흑인 중간계급의 아비투스(habitus)를 내면화한 유년 시절의 제임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본드만은 제국과 흑인 중간계급이 공유했던 가치체계 아래 포섭될 수 없었던 트리니다드의 민중문화를 상징했다. 그의 크리켓 방식은 흑인 중간계급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카니발적인 민중 축제와 오락의 잔존물이었다.

흑인 중간계급은 제국의 지배 문화를 저항의 무기로 사용했다. 크리켓 코드와 위신 담론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영국 백인이나 혼혈 중간계급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일관되다.”라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 제임스의 표현을 빌자면 자수성가한 흑인 중간계급에 “위신은 이상이 아니었다. 갑옷이었다 (Respectability was not an ideal, it was an armour.)”⁵⁶⁾ 이러한 전유는 역설적으로 제국 담론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혼혈 중간계급과 마찬가지로 흑인 중간계급을 서인도 민중문화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들었다. 부르주아적 노동윤리에서 스포츠는 노동의 능력을 양성하고 노동의 고통을 인내하는 훈련이며 새로운 노동을 위한 휴식에 불과했다. 또한, 흑인 중간계급이 저항의 무기로 사용했던 위신은 식민지를 제국으로부터 구분하는 이분법에 저항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끄러웠다. 입술은 자연스럽게 말려 있었고, 거의 항상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통해서 도를 더했다. 나의 할머니와 숙모들은 그를 몹시 혐오했다.... 그 이상으로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매우 조잡하고 저속했지만, 그가 손에 배트를 들면, 그는 매우 우아하고 멋스러웠다.” James, *Beyond a Boundary*, pp. 3-4.

56) *Ibid.*, p. 8.

서인도 식민지에서 민중을 흑인 중간계급으로부터 구분하는 이분법을 재생산했다. 따라서 본드만과 같은 식민지 서벌턴은 흑인 중간계급의 문화적 민족주의에서 배제되었다.

저명한 영국의 흑인 문화이론가인 길로이(Paul Gilroy)는 본드만과 같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문화가 서구적 근대성의 생산력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자본주의적이고 ‘대항-문화(counterculture)’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⁵⁷⁾ 대서양 노예제의 잔인하고 참혹한 경험과 그 기억은 생산적 노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은 부정적인 가치로 인식되는 반면, 자율적인 욕망에 기초한 여가활동이나 성적 행위가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음악과 놀이 같은 비-노동(non-work) 활동은 임금노동과 연계된 작업규율 및 시간 개념을 거부하고 노동의 소외를 비판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 따라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는 서구의 사회주의자 및 백인 노동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길로이는 이처럼 대서양 커넥션을 통해서 형성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정체성과 대안적 근대성이 가지는 전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제임스도 자신이 속했던 흑인 중간계급의 부르주아 노동윤리에서 벗어나 오락과 스포츠가 인간 존재의 필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오락과 스포츠는 돈과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여가, 즉 노동을 위한 휴식이 아니었다. 대중의 자기활동의 한 부분이며, 문명화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제임스는 노동자들은 스포츠에 의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트로츠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오락과 스포츠 산업의 성장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임스의 시각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노동 및 사회주의 이념과 분리하는 길로이와 분명히 달랐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역사 서술인

57) Paul Gilroy,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 202.

『블랙 자코뱅(Black Jacobins)』에서 이미 대서양 노예제가 흑인 노예를 산업 노동자와 같은 근대 주체로 변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⁸⁾ 길로이는 노동과 여가를 대립적으로 보면서 노동을 임금 노동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임금 노동의 비판은 결국 생산적 노동 자체의 거부를 의미했다. 그러나 제임스에게 노동과 여가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노동과 여가는 모두 인간의 총체적 발전에 필수적이었다. 생산적 노동은 인간의 자기활동과 자기실현에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임스는 거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대중의 예술적 실천인 카니발이 대중의 대규모 노동과 자발적 조직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⁹⁾

제임스의 트리니다드 카니발에 들어가는 대중의 대규모 노동에 주목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리더를 세우고 공연을 위해 장시간 일하며 끝나면 해산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것을 ‘자기조직화(self-organisation)’에 기초한 대중의 자기활동이라고 표현했다. 대중의 자기조직화는 그가 1940년대 미국 노동 조직과 산업 조직을 분석하면서 ‘침투하는 사회주의 사회(invading socialist society)’라고 개념화했던, 즉 자본주의 사회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조직화를 의미했다. 자기조직화에 기초한 대중의 자기활동은 자본·국가·관료·엘리트·지식인 등의 통제와 관리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대중의 역량이었다. 그는 1940년대부터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 및 생산 과정에서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료들로부터도 자기-조직화에 기초한 독립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트리니다드 카니발의 발전이 서인도 식민지 독립 및 민주주의의 확장과정과 나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중의 독립적인 자기활동이 만개하게 되었을 때 문화의 영역을 넘어 서인도 사회의 정치와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58)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1938) (New York: Random House, 1989).

59) James, "Carnival", pp. 285-288.

제임스에 따르면, 트리니다드 카니발은 국민적 축제(national festival)였다. 이러한 국민적 축제는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자유 시민들의 거대한 집회는 자신들이 획득한 새로운 힘을 대중 축제 속에서 과시했다. 이때 나라의 가장 위대한 화가·음악가·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미슐레(Michelet)와 조레스(Joures) 같은 프랑스 역사가들은 프랑스 국민의 형성을 ‘프랑스 혁명 기념 축제(Fête de la Fédération)’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축제는 단순한 시민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⁶⁰⁾ 공동체와의 진정한 통합을 원하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을 공동체와 대립시키고 육체노동을 정신노동과 분리하는 서구의 근대 산업 문명은 국민적 축제가 가졌던 공동체적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민 축제가 가졌던 창조적 예술성 또한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근대 예술 활동은 대중의 일상 및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엘리트 고급문화로 변질했다. 제임스는 대중의 자기 조직화에 기초한 자기활동인 트리니다드 카니발이 일상 및 노동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해서 서인도 국민의 예술적 창조성과 전인적 인간을 육성할 수 있게 해주기를 희망했다.

제임스는 칼립소가 서인도 문학이나 크리켓과는 다른 방식의 국민 문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임스는 나이폴과 같은 작가와 크리켓 선수들 그리고 카니발 음악인 칼립소와 스틸밴드가 ‘서인도주의(west indianism)’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¹⁾ 이들이 서인도의 소외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던 세제르와 같은 서인도 지식인들이 보지 못했던 서인도 국민의 역사와 발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는 헌신과 끈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또한, 문학과 크리켓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존 틀 안에서 새로운 차원을 더했지만, 카니발 음악인 칼립소는 토착적인 국민 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칼립소 가수 스페로우(Mighty Sparrow)를 “모든 방식에서 진정한 서인도 예술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며 “서인도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60) James, *American Civilization*, pp. 158-165.

61) C. L. R. James, “The Mighty Sparrow (1961)”, p. 183.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제임스는 칼립소가 오늘날의 탈식민주의 연구가들이 주장하듯 아프리카적 기원을 갖고 식민 권력 담론의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흑인 중간계급의 크리켓과는 다른 서구 문화의 민중적 전유라고 할 수 있었다. 칼립소가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예로 들면서 서인도 국민은 해외 영토에서 발전된 문화를 기초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토착적인 것을 찾고 발견해야 하고 자신의 문화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로우는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진정 위대하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스페로우와 칼립소를 통해서 서인도 국민 정체성의 새로운 발전을 전망했다. 스페로우의 칼립소는 (서인도) “국민이 진정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표현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크리켓만큼 심층적인 시선에서 칼립소 음악의 문화적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가 흑인 중간계급 출신이었다는 점과 함께 오랫동안 서인도 사회를 떠나 있었고, 다시 떠나게 되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임스는 여가를 노동에 대립시키고 아프리카적인 것을 유럽적인 것과 대립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인도 국민의 정체성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려 했다. 제임스는 인간의 본질이 노동에 있다는 것은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그에게 오락 및 스포츠는 노동과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인간의 총체적·전인적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에게 소외를 극복한 노동은 놀이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가 인간 존재의 진정한 본질은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⁶²⁾

62) “아이들은 새로운 사회의 표현이자, 사회주의의 불가피성의 구현이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맺으려 노력하는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기회를

“호모 루덴스”의 탈식민주의

제임스는 서구 문화의 전유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데 서인도 국민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가진 창조적 능력을 긍정했다. 이러한 제임스의 시각은 나이폴의 비관론과 바바의 낙관론을 벗어나서 순응과 저항의 다층적이고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흑인 민중이 전유했던 카니발 문화를 국민적 헤게모니를 발휘했던 흑인 중간계급의 크리켓 문화와 함께 보여주면서 이후 서인도 식민지가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다른 탈식민화의 길을 성찰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탈식민화의 민중적 길은 서인도 제도에서 1965년 ‘트리니다드 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1970년대 ‘블랙파워운동’ 속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1964년 ‘노팅힐 카니발’과 1970년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낼 것이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hayoungj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C. L. R. 제임스(C. L. R. James), 크리켓(Cricket.), 카니발(Carnival),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호모루덴스(Homo Ludens), 서인도 제도(West Indies)

(투고일: 2020.04.15, 심사일: 2020.05.11, 게재확정일: 2020.05.11.)

이용하여 스스로 조직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노동자들 전체가 지닌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이들의 놀이는 노동의 새로운 방식이다. 놀이는 아이들 스스로가 계획하며, 협동적이고 창조적이다. 놀이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지도력을 발전시키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모든 분열을 제거한다. 노동자들의 생산에서 부정된 것을 아이들은 놀이에서 표현한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는 아이들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기 방식대로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의 활동은 그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C. L. R. James, "On the Woman Question: An Orientation(1951)", available at <http://www.marxists.org/archive/james-clr/works/1951/09/woman-question.htm>; Internet.

<국문초록>

“호모 루덴스”의 탈식민주의 :
서인도 식민지의 크리켓과 카니발 문화

하영준

이 연구는 서인도 출신의 흑인급진주의 지식인, C. L. R. 제임스의 크리켓 및 카니발과 관련된 저작을 검토하여 서인도 대중문화가 식민주의와 맺었던 다층적이고 다양한 양상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마추어 크리켓 선수로서 활동했었고 혁명가의 곤궁한 생계를 크리켓 전문기자로서 버티야 했던 제임스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서인도 식민지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적 실천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인도 대중문화가 식민지의 인종적·계급적 권력 관계가 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곳인 동시에 전복되거나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투쟁의 장이었다. 또한, 제임스는 1940 년대에 고대 그리스와 프랑스 혁명기, 그리고 동시대 미국 사회의 문화 연구를 통해서 대중문화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확장과 맺는 밀접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크리켓과 카니발 둘 다에서 반식민주의·반인종주의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카니발과 크리켓은 그 계급적 토대와 문화적 기원에서 서로 달랐다. 크리켓은 영국에서 기원했다면 카니발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 흑인 중간계급이 문화적 헤게모니가 주도한 크리켓 문화와는 달리, 트리니다드 카니발은 자기 조직화를 통한 독립된 대중의 자기활동이라는 민주적 차원을 가졌다. 제임스는 크리켓과 카니발의 서인도적 전유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들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인종적·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서인도 제도에서 서인도 연방을 창출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국민 정체성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저작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국령 서인도 사회의 식민화와 탈식민화의 문제를 순응과 저항의 다층성과, 그리고 저항의 다양한 형태에서 검토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Homo Ludens's Postcolonialism:
C. L. R. James and Creolizing Cricket and Carnival in the British
West Indies

Ha, Youngjun

The study aims to examine writings on cricket and carnival of black radical, C. L. R. James from Trinidad and Tobago, and to reveal the multi-layered relationship that popular culture had with the colonial politics in the British West Indies. James was able to recognize mass sports as important cultural practices that were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flicts in colonies, because of his experiences as an amateur cricket player in the British West Indies and a cricket journalist in order to make a living for his revolutionary activities in the UK. Mass sports were the arena where power relations of race and class could be culturally reproduced and, at the same time, overthrown or newly reconstructed. He also gained a new perception of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and the expansion of democracy through cultural studies of Ancient Greece,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American society in the 1940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popular culture, James could see cultural resistance to colonialism and racism in both crickets and carnivals in the British West Indies. But, on the other hand, they we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on their basis of class and cultural origins. Trinidad cricket originate in England, while Trinidad carnival originated in France and Africa. It was different in that Trinidad Carnival had a democratic form of self-activity

and self-organizations of masses of the people, unlike Trinidad cricket culture led by the black middle class. James believed that cricket and carnival could not only challenge cultural assumptions of colonialism and racism, but also contribute to creating a newly unified nation and an independent West Indies Federation in the West Indies archipelago with territorial fragmentation and with the complex racial and cultural variables. through their creolization (West Indian's cultural appropriation of them). Therefore, studying James' works on cricket and carnival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new understanding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in British West Indies society through mass sport and festival culture.

참 고 문 헌

1. 사료

James, C. L. R.,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Trinidad: Vedic Enterprises Ltd, 1962).

_____, *American Civilization* (Cambridge MA & Oxford UK: Blackwell, 1993).

_____, *Beyond A Boundary*(196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_____, *A Majestic Innings: Writings on Cricket* (London: Aurum Press Ltd, 2006).

_____, "Carnival", Anna Grimshaw ed., *The C. L. R. James Reader* (Oxford UK & Cambridge USA, 1992), pp. 285-288.

_____, "On the Mighty Sparrow",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p. 191-201.

2. 단행본

Bale, John and Mike Cronin eds., *Sport and Postcolonialism* (Oxford: BERG, 2003).

Burton, Richard D. E., *Afro-Creole: Power, Opposition, and Play in the Caribbe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Guilbault, Jocelyne, *Governing Sound: The Cultural Politics of Trinidad's Carnival Music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John Nauright, Alan G. Cobley, and David K. Wiggins, *Beyond C. L. R. James: Shifting Boundaries of Race and Ethnicity in Sport* (Fayetteville: Th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2014).

King, Nicole, *C. L. R. James and Creolization: Circles of Influence* (Jackson: University of Mississippi, 2001).

Regis, Louis, *The Political Calypso: True Opposition in Trinidad and Tobago, 1962-1987*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8).

3. 논문

Andrew Smith, "'A Conception of the Beautiful': C. L. R. James's Glasgow Herald Cricket Articles, 1937-1938",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 23, No. 1(February 2006).

Andrew Smith, "The Window and the Wardrobe: C. L. R. James and the Critical Reading of Sport and Literature",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Vol. 52, No. 3(2016), pp. 262-273.

Anthony Bateman, "'From Far It Look Like Politics': C. L. R. James and the Canon", *Cricket, Literature and Culture: Symbolising the Nation, Destabilising Empire* (Farnham: ASHGATE, 2009).

Anthony Bateman, "'From Far It Look Like Politics': C. L. R. James and the Canon of English Cricket Literature", *Sport in Society*, Vol. 12, No. 4/5(May-June 2009).

Anuradha Dingwaney Needham, "Inhabiting the Metropole: C. L. R. James's 'Grand Narratives' of Resistance and Emancipation", *Using The Master's Tools: Resistance and the Literature of the African and South-Asian Diasporas*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B. Stoddart, "Sport, Colonialism and Struggle: C. L. R. James and Cricket", *Sport In Society*, Vol. 9, No. 5(2006).

Christian Hogsbjerg, "What Would and Atlenian Have Thought of the

- Day's Play?' C. L. R. James's Early Cricket Writings for The Manchester Guardian",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Vol. 52, No. 3(2016).
- Douglas Midgett, "Cricket and Calypso: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ocial History in the West Indies", *Culture, Sport, Society*, Vol. 6, No. 2/3(2003).
- Douglass Hrtmann, "What Can We Learn from Sport If We Take Sport Seriously As A Racial Force? Lessons from C. L. R. James's *Beyond A Boundar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3(May 2003).
- Gordon Rohlehr, "C. L. R. James and the Legacy of Beyond a Boundary", Hillary Beckles, Viv Richards, and Hialry MCD Beckles, *A Spirit of Dominance: Cricket and Nationalism in the West Indies: Essays in Honours of 'Viv'*(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1998).
- Ian Baucom, "Put A Little English ON It: C. L. R. James and England's Field of Play", *Englishness, Empire, and the Locations of Identi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9).
- Jervis Anderson, "Cricket and Beyond: The Career of C. L. R. James", *The American Scholar*, Vol. 54, No. 3(June 1985).
- Malcolm MacLean, "Ambiguity within the Boundary: Rereading C. L. R. James's *Beyond a Boundary*", *Journal of sport history*, 37-1(January 2010).
- Richard D. E. Burton, "Cricket Carnival and Street Culture In the Caribbean", Grant Jarvie ed., *Sport, Racism and Ethnicity* (London: Flamer Press, 1991).
- Sandra Pouchet Paquest, "Autobiographical Frameworks and Linked Discourses: George Lamming's The Pleasure of Exile and C. L. R. James's *Beyond a Boundary*", *Caribbean Autobiography: Cultural Identity and Self-Represen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2).
- Simon Featherstone, "Late Cuts: C. L. R. James, Cricket and Postcolonial England", *Sport in History*, Vol. 31, No. 1(March 2011).
- Sylvia Wynter, "Beyond the Categories of the Master Conception: The Counterdoctrine of the James Poiesis", Paget Henry and Paul Buhle eds.,

C. L. R. James's Caribbe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2).

Tim Hector; Compiled and with Editorial Commentary by Stephen Wagg, "One Eye on the Ball, One Eye on the World: Cricket, West Indian Nationalism and the Spirit of C. L. R. James", Stephen Wagg ed., *Cricket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colonial Age: Following 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